

인도 : 이영제 목사

목	도	다	같	이
기	원	인	도	자
찬	송 13장	다	같	이
교	독 22번	다	같	이
신	앙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102장	다	같	이
기	도	인	도	자
성	경 요21:1-14	다	같	이
특	송			
설	교 예수님은 누구 신가?	이	영	제
		(2. 나의 주(主)이신 예수님)			
찬	송 455장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봉	헌 기도	인	도	자
광	고	인	도	자
찬	송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와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	같	이
축	도	인	도	자



24시간 릴레이 중보 기도자

매일1시간 : 오전6시(차영숙) / 오후1시(이영제) 6시(김효선) 유동(이창걸)



주앙교회 5대 실천강령

- ◇ 24시간 쉬지않는 릴레이 기도로 성도 자신이 성령받고 교우와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한다.
- ◇ 본 교우는 모두 주 예수그리스도를 바라고 예배하여,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
- ◇ 모든 교회재정(십일조, 감사, 선교헌금 등)의 지출은 선교비를 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로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여 오는 세대에게 복음과 선교정신을 물려준다.
- ◇ 교회 내 모든 기관은 선교 체제로 조직 운영하며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운영한다.



주일오후 2시 예배 / 히브리서 주석강해 설교

이영제목사가 직접 연구한 주석자료를 기초로 강해설교 합니다.

2:1-4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구원

1절 **그러므로** διὰ τοῦτο(디아 투토)는 “ 그런 까닭에” 로 앞장 전체를 의미한다. 즉 ‘ 아들은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존재이므로’ 가 된다. **모든 들은 것을** 구약시대에 총체적인 많은 율법들을 말한다. 원문은 이 말 앞에 δεῖ(데이) 목적격과 함께 사용하는 이 단어는 “ 반드시...해야한다” 는 현재 능동태이다.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περισσοτέρως προσέχειν(페릿소테로스 프로세케인) “ 더 많이, 빈번히”, “ 전심으로, 전력하여” 로 앞의 δεῖ(데이)와 함께 사용한 뜻은 ‘ 반드시 현재에 많이들은 구약의 율법들을 항상 전심전력하여 주의하라’ 로 이해될 수 있다.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παραρῶμεν(파라뤼오멘) “ 흘러가다” 는 ‘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다’ 또는 ‘ 주머니에서 돈이 술술 새어나가는 것’ 을 뜻하는 것과 같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복음의 진리가 나에게서 떠나가고 있음을 뜻한다.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출애굽기 19, 20 장에는 천사들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수여하는 일을 천사가 맡고있었다고 믿고있었다(히1:4, 행7:53, 갈3:19). 그러나 70인역(LXX)은 신33:2, 시68:7에서 천사들이 오른편에 함께 있었다고 전한다.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βέβαιος, καὶ πάντα(베바이오스 카이 파사) “ 안정된, 굳은, 확고한”, “ 전체” 로 παράβασις καὶ παρακοή(파라바시스 카이 파라코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불순종, 불복종과 죄과의 불순종이라는 두 단어가 겹쳐 하나님의 뜻에 고의적인 거역을 하고 있다.

공변된 보증을 받았거든 ἔνδικον(엔디콘)은 “ ...안에서” 의 뜻인 ἔν(엔)과 δικον(디콘) “ 공의” 의 합성어로 “ 공의 안에서” 이다. “ 보증” 은 μισθαποδοσίαν(미스다포도시안) 마땅히 치러야할 값으로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심판을 시사한다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오

τηλικαύτης(텔리쿠테스) “ 매우 큰, 매우 위대한” 은 찬사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과 대조하고 있다. ἀμελήσαντες(아멜레산테스) “ 무관심하다, 부주의하다” 로 마22:5에서는 혼인잔치에 왕이 손님들을 초청하고 돌아보지 않고 있다. 잠3:10의 의로운 사람이 무시당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πῶς ἡμεῖς ἐκφευξόμεθα(포스 엠에이스 에크퓨크소메)는 “ 어떻게 우리가 도망할 수 있겠느냐” 로 πῶς(포스)는 수사적 의문문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말한다. 잠3:10의 의로운 사람이 무시당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πῶς ἡμεῖς ἐκφευξόμεθα(포스 엠에이스 에크퓨크소메)는 “ 어떻게 우리가 도망할 수 있겠느냐” 로 πῶς(포스)는 수사적 의문문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말한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전치사 διὰ(디아)는 “ ...를 통하여” 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고 있음을 뜻한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들은 자들'은 사도들을 포함해서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 확증한 바니” ἐβεβαιώθη(에베바이오데)는 법률적 용어로 “ 보증인을 세우다” 는 의미로 복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다.

4절 **하나님도 ...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안에 구체적으로 네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셨음을 증거 한다.

① 표적들 : σημείους(세메이오스)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 담긴 의미와 목적을 말한다.

② 기사(奇事)들 : τέρασιν(테라신)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람들에게는 경이로운 현상들이다(마24:24, 막13:25, 요4:48, 행2:19, 행7:36 등).

③ 여러가지 능력 : ποικίλαις δυνάμεσιν(포이킬로스 뒤나메신)은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계시하신 말씀을 확증하고 보증하기도 하신다.

위의 세 부분들은 행2:22에 기록되었다(순서는 차이가 있음).

④ 성령의 나눠 주신 것 : 원어에서는 성령을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프뉴마토스 하기오스)은 “ 바람, 영” 과 “ 신성, 거룩” 한 두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고전12:11의 나누어 주시는 은사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의 은사 등으로 증거 한다.



제목 : 예수님은 누구 신가?

(1. 나의 길이신 예수님) / 본문 : 요 14:4-6

저는 어렸을 때 산에 올라갔다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숲 속을 헤매다 가시에 찢리고, 나뭇가지에 맞고, 발을 잘못 디더 넘어지고 이렇게 한참을 헤매다 그만 뱀 소굴을 만났습니다. 뱀들이 바위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놀라서 무조건 숲 속으로 도망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렵게 깊은 산 속의 숲 속에서 작은 길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길은 저에게 생명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웠던지 한숨을 크게 쉬고 길로 나아갔을 때는 이제야 되었다는 마음의 안도였습니다.

그리고 제 몸을 보니까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지 못했을 때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치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가고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세상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길하고는 차원이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4절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어원은 οἶδατε(오이다테)로 완료형이지만 현재적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형은 아니기 때문에 “알리라”의 번역보다는 [너희가 알고 있다]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없습니다.

그런데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마가 말했지만 “우리가”로 말함으로 다른 제자들도 포함하여 함께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심정은 사도행전2장에서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알고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래에 알게될 것이지만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하여 이미 알고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쉽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나 어떻게 나왔어’라고 물어보면 ‘이 다음에 다 알게 될 거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미 아이가 성장하면 반드시 알게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여 ‘너는 이미 알고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논법입니까?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확신을 당겨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하고 있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때는 분명히 알게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도마가 생각하는 길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 달랐습니다. 도마는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로 말하므로 실제로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길”이 되시는 것은 그분이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왜 길을, 다리를 다시 닦고 놓습니까? 예전 길로는 다리로는 건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새롭게 놓으신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께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집만의 맛



이영제 목사
주요교회 담임
한국기독교회 대표

갓 시집온 신부가 만드는 음식은 그 맛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짠맛 싱거운 맛, 매운맛 그리고 가끔 밥을 태우기도, 설익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만의 음식을 만들고자 결코 쉽게 사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매일
식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가끔 한번은 식혀먹을 먹을 뿐입니다.

한두 번은 그런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을 계속해서 먹다보면 싫게 싫증이 납니다.

신부가 음식 맛을 잘못 낼 때 그저 열심히 한것이 고마워서 맛있다고 하고
먹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 맛은 머지 않아 우리 집만의 고유한 맛을 낼 것입니다.

그 맛은 사먹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내의 손길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든 것이기에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주요교회도 이제 이러한 맛을 내 보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그 집 음식 참 특별한 맛이 있다. 찬이 없지만 맛깔스럽다'

그런 소문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영제>

주요교회가 기도하고 협력하는 선교사

베트남 정00 선생 / 중국 리00 전도사 / 필리핀 정형구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김형주 선교사 / 인도 초띠욱이 자매
파키스탄 정00 선교사 / 미국 김능수 전도사

예배시간 안내

주일 오전 11:00 /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 찬양, 성경강해

새벽 5:30 / 새벽예배

수요 오후 7:30 / 삼일예배(주제별 성경공부)

금요 오후 9:00 / 심야예배(찬양과 기도집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주 앙 교 회

JOOANG PRESBYTERIAN CHURCH

표어

말씀으로 은혜가 가득한 교회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선교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봉사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
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 40:31)

담임목사 이 영 제

Pastor Lee Young Jae

435-050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3-3(제일프라자 5층 본당, 사무실 4층)

교 회 : (031)399-7706 선교회(KCM) : (031)399-7705

목사관 : (031)398-7702 핸드폰 018-213-7702

Homepage : <http://kcm.co.kr> Email : webmaster@kcm.co.kr